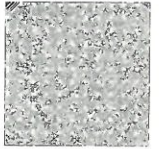


# 시온 주보

제2404호 2022년 7월 24일(다해)  
연중 제17주일(조부모와 노인의 날)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



발행 [출판] 천주교 서울대교구 | 발행인 정순택 |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 입당송 | 시편 68(67),6-7,36 참조

하느님은 거룩한 거처에 계시네. 하느님은 한마음으로 모인 이들에게  
집을 마련해 주시고, 백성에게 권능과 힘을 주시네.

## 제1독서 | 창세 18,20-32

## 화답송 | 시편 138(137),1과 2ㄴ,2ㄱㄴ과 3,6-7ㄴㄷ,7ㄹ-8(◎ 3ㄱ 참조)

◎ 주님, 제가 부르짖던 날, 당신은 응답하셨나이다.

○ 주님, 제 마음 다하여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제 입의 말씀을 들어  
주시기에, 천사들 앞에서 찬미 노래 부르나이다. 거룩한 성전 앞  
에 엎드리나이다. ◎

○ 당신은 자애롭고 진실하시니, 당신 이름 찬송하나이다. 제가 부  
르짖던 날, 당신이 응답하시고, 저를 당당하게 세우시니, 제 영혼  
에 힘이 솟았나이다. ◎

○ 주님은 높이 계셔도 낮은 이를 굽어보시고,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알아보시나이다. 제가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원수들의 분노 막  
아 저를 살리시나이다. 당신은 손을 뻗치시나이다. ◎

○ 주님은 오른손으로 저를 구하시나이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  
루시리라. 주님, 당신 자애는 영원하시옵니다. 당신 손수 빛으신  
것들 저버리지 마소서. ◎

## 제2독서 | 콜로 2,12-14

## 복음환호송 | 로마 8,15 참조

◎ 알렐루야.

○ 우리는 성령을 받아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네.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하느님께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네.

## 복음 | 루카 11,1-13

## 영성체송 | 시편 103(102),2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



나종진 스테파노 신부 | 사목국 노인사목팀

## 사명 그리고 기도와 청원

오늘은 '조부모와 노인의 날'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노인들이 고립된 채 홀로 외로이 고통을 겪는 일이 없도록 교회 공동체가 곁에서 노인들을 돌볼 수 있기를 바라며 작년(2021년)에 이날을 제정하셨습니다. 아울러 노인들이 이날을 통해 주님께 받은 사명을 교회와 사회 안에서 펼쳐 나아가는 이들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교황님은 노인들이 "하느님의 신실한 사랑의 특별한 증인이자 복음화 사업의 핵심 인물들"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조부모들은 "신앙 안에서 아이들과 젊은이들을 교육하는 데 꼭 필요한 연결고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인들은 세월을 건너 낸 이들이며, 자신이 경험한 모든 것에 대한 감사를 마음속에 간직해 온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삶의 의미를 찾고 있는 손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격려할 수 있으며 그것이 노인들, 특히 조부모의 사명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교황님은 그 사명을 일깨우시고자 '조부모와 노인의 날'을 예수님의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인 성 요아킴과 성녀 안나의 기념일(7월 26일)에 가까운 주일에 지내도록 하셨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말씀에는 손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데, 이는 삶의 누룩으로 자신의 신앙을 빚어온 그들의 생생한 증언으로 손자녀 세대에게 전달된다고 하셨습니다. 교황님도 당신의 할머니(로사)가 사제 서품식 날 적어 주신 말씀을 통

해 이를 경험하셨다고 언급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항상 성무일도서 안에 끼워 넣고 다니시면서 자주 읽고 힘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세월의 지혜] 참고)

교황님의 말씀과 교황님의 할머니 로사를 통해 생각해봅니다. 무엇이 노인과 조부모를 하느님 사랑의 특별한 증인과 손자녀들을 위한 신앙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복음이 이를 잘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자신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오기를, 육신을 위한 음식과 더불어 하루를 온전히 하느님의 모상으로 살 수 있게 하는 말씀과 성체를 베풀어 주시기를, 죽음으로 내모는 단죄와 복수 대신에 삶으로 이끄는 용서를 구하고 받을 수 있기를, 참 생명이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유혹에서 건져 줄 것을 온 마음으로 드린 '주님의 기도'(루카 11,2-4)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 바친 '주님의 기도'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데 가장 좋은 것, 즉 '성령'을 받고자 청하고, 얻고자 찾으며, 열리도록 문을 두드리며(루카 11,9-13) 바친 끊임없는 '청원'입니다.

'조부모와 노인의 날'을 맞아 우리 자신도 개인의 성화와 신앙의 성숙을 이루며 손자녀들에게 신앙을 전달해주는 거룩하고 소중한 사명을 수행해 나아갈 수 있는 노인과 조부모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복음의 말씀에 따라 끊임없이 마음을 다해 '주님의 기도'를 바치고 '성령'을 청하였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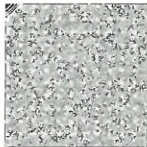


**"그분께서는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골로 2,13)



저 빛을 향해 걸어가십시오. 그 과정에서 나를 가로막는 어둠을 이겨내십시오.  
온전히 믿고 따르니 그 힘 주심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용서는 이유가 없습니다.

유별남 레오폴도 | 가톨릭사진가회



황찬욱 아우구스티노 | 명동밥집 봉사자

## 명동밥집에서의 1년

제가 대학을 다니던 70년대까지만 해도 명동은 대한민국의 중심지였습니다. 거의 모든 금융기관과 화려한 패션상가, 일류 제화점들이 있었고, 옆 동네 충무로는 문인들과 영화인들로 붐볐습니다. 그런 화려한 욕망의 명동에서 저는 1982년 은행원으로 저의 첫 사회생활을 시작했었는데, 근 40년이 지나 이번에는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명동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명동성당 안에 있는 무료 급식소 명동밥집에서 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 침체 속에서 어딘가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던 중 우연히 명동밥집 봉사자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봉사에 대한 거창한 의미나 포부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냥 그렇게, 우연히 시작했을 뿐입니다. 생각해 보면 제가 봉사를 선택한 것이라기보다는 저에게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는 것뿐이지요. 모르는 사람과 가까워지기 힘든 성격의 제가 지난 1년 동안 명동밥집에서 봉사를 계속할 수 있었던 것도 신기합니다. 솔직히 봉사를 끝내고 돌아가는 길은 뿌듯하기보다는 피곤하고, 늘 저녁에 있을 레지오 주회합 준비를 걱정하는 마음이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명동밥집이 지난 1년 사이에 꽤 이름이 알려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누구나 알만한 연예인도 다녀가고, 심지어 대통령 당선인도 다녀갔습니다. 명동밥집이 무료 급식소 중에서 제법 그럴싸한 곳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생각하기에도 좀 어이없지만, 명동밥집 봉사를 그저 우연히, 정말 우연히 시작했던 제가 요즘은 이런 유명하(?) 명동밥집 봉사자라는 것에 스스로 뭐라도 된 양 자랑삼아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마치 제가 처음부터 커다란 뜻을 가지고 봉사를 시작했고, 저를 포함한

봉사자들의 노력 덕분에 명동밥집이 이렇게 빨리 자리 잡고 유명해진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길을 계획하여도 우리의 발걸음을 이끄시는 분은 주님이시듯이(잠언 16:9) 오늘의 명동밥집이 있기까지 그분의 이끄심이 있었음에도, 그리고 저는 그저 곁에서 “예, 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한 것뿐이었음에도, 그분께서 하신 일을 마치 제가 한 일인 양 빼기고 있는 것이 제가 생각해도 참 염치없는 일입니다.

이런 저의 염치없는 생각과는 별개로 지난 1년 동안의 엄청난 변화를 생각하면 그분께서 앞으로 1년 동안 또 어디로, 어떻게 명동밥집을 이끌어 가실지 내심 기대가 참 많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저를 불러주셔서 기쁘고 감사드리면서, 주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듭니다. 게다가 일을 쉼 잘하는 편도 아닌데, 저를 굳이 불러주신 이유를 알고 싶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앞으로도 계속 봉사를 다닐 수밖에 없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계속 봉사를 다니다 보면 염치없는 착각도 자연스럽게 고쳐주시겠지요.

한컷 묵상

칭찬하네니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류상애 아녜스 수녀  
살트르성바오로수녀회 대구관구



가톨릭 신자들을 위한 가톨릭 신학 26

## 무신론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입장



조한규 베네딕토 신부 | 가톨릭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무신론(無神論)이란 신 존재를 부정하거나, 신앙을 거부하는 이론입니다. 소극적 무신론은 신이 없다거나, 없어도 상관없다는 주장이고, 적극적 무신론은 신의 자리에 무언가를 대신해 신격화합니다. 예를 들어, 인간이 중심이 되거나 과학을 절대시하며 신의 역할과 위치를 대신합니다. 무신론자들의 물음과 주장은 다양하지만,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느님이 계시는가? 만일 계시다면, 세상과 인간이 왜 이 모양인가? 왜 착한 사람이 고통받고, 악하게 살아도 별문제 없는가?’ ‘둘째, 그리스도교가 주장하는 하느님이 계시다고 치자. 하지만, 다른 신들도 존재하고, 혹은 다른 신들의 힘이 더 세고 위대한 것이 아닌가?’ ‘셋째, 하느님도 계시고, 그리스도교 하느님이 최고라고 치자. 그런데, 그 하느님을 믿지 않아도, 매 주일 미사 가지 않아도 별 상관없는 것 아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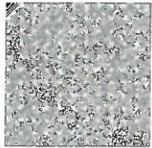
누군가 위 세 가지 질문을 들었을 때, 명확하게 답변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느님이 계시다고 믿자니 이해 안 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반대로 하느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고 살기에도 이해 안 되는 일들은 많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다고 그 존재와 의미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이나 우정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곁에 존재하고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톨릭교회는 무신론의 물음과 주장에 반대하고, 하느님 존재하심을 확신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무신론은 온갖 형태의 우상 숭배를 의미합니다. (시편 14,1; 10,4; 36,2, 지혜 13,5, 로마 1,18-20, 사도

14,14-16; 17,26-29 등) 성경에서는 하느님 존재를 확신하기에, 절대적 무신론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적극적 무신론은 18세기 후반에 신앙을 철학적, 과학적으로 검증하려는 시도를 통해 시작됩니다. 그 이후 무신론은 견고해졌고, 다양한 형태로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가톨릭교회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무신론을 현대의 지극히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치밀하게 검토할 문제로 다루며, ‘파문에서 대화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사목헌장』 19-22항 참조) 가톨릭교회는 무신론이 제기하는 문제가 결코 무신론을 통해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하느님 존재를 부정하는 무신론적 경향에 대해 가톨릭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어떤 태도와 답변을 추구해야 할까요? ‘가장 그리스도교적인 것’을 찾고, 재발견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계시를 통해 당신에 대해 많이 알려주셨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느님께서 이르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성경과 교부들의 가르침, 2천 년 동안 교회가 믿어온 바를 성실하게 따르며 산다면 그리스도교는 그리스도교다워질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교회를 통해 알려주신 진리의 말씀을 귀와 마음으로 잘 듣고, 가르침대로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닮지 않았다는 누군가의 말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고, 그분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교와 그리스도인이 제 자리를 찾는다면, 과학을 통해 하느님을 부정하고, 인간이 중심이 되려는 경향은 감소할 것입니다.



## 성령 안에서 함께 가는 교회를



양주열 베드로 신부 | 통합사목연구소 소장, 시노드 교구 실무자

### 시노드 교구종합문서

서울대교구는 제16차 세계주교시노드 교구 단계의 결과로 시노드 교구종합문서를 주교회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서울대교구 시노드 홈페이지(www.synod.or.kr) 또는 글 상단의 QR 코드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대교구는 교구 단계 시노드 여정을 통하여 시노드 교회를 배우고 체험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을 통해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점을 제안해주는 참가자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시노드 교구종합문서는 이 목소리를 모아 정리한 문서입니다. 이 문서를 통해 세계주교시노드 여정에 기여하고, 또한 이번 시노드 여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 이들에게 시노드의 결실을 전달할 수 있으리라 희망합니다. 시노드 교구종합문서의 주요 내용은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기 위한 하느님 백성의 제안과 서울대교구가 이해한 성령의 이끄심입니다.

### 하느님 백성의 목소리

교회가 시노드 교구 단계 여정을 통해 하느님 백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은 성령께서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교 신자 개개인의 삶 안에 인격적으로 현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하느님의 백성은 서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임으로써 함께 배우고 성장합니다.

이번 시노드 교구종합문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시노드 여정에 참여함으로써 하느님과 나누는 친교를 발견하고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 안에 함께하시는 하느님을 발견하고, 공동체 안에서 체험을 나눔으로써 하느님과 친교를 이루고, 교회에 참여하는 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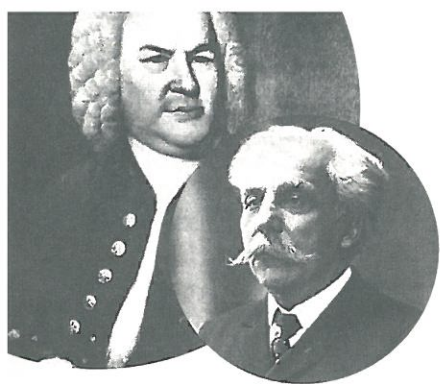
자신을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하느님 백성이 상호 경청을 통해 교회의 권위적인 태도와 교회 사명에 대한 무관심, 세상과 이웃을 위한 봉사에 소홀하였던 교회의 약점을 마주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과 친교를 나누고, 교회 가르침을 이해하며, 소외된 이들에게 인격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애덕을 실천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복음선포를 위해 중요하다는 사실을 짚었고, 그렇게 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 성령의 목소리

시노드 교구종합문서의 또 다른 내용은 서울대교구가 식별한 성령의 이끄심에 관한 것입니다.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의 핵심이 만남을 통한 경청에 있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전해주시는 목소리로 식별하고 문서 안에 담았습니다. 경청을 통해 하느님 백성은 상호 존중하고,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또한 경청을 통해 하느님과 친교를 이루고, 교회 조직 안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생활하며, 이러한 경청이 현시대에 교회가 세상에 선포하는 복음이 됩니다.

### 서울대교구의 목소리

서울대교구는 세계주교시노드 교구단계를 마치면서 시노드 교구종합문서를 통해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담대한 경청'을 제안합니다. 교회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과 이웃의 기쁨과 희망, 슬픔과 고뇌를 경청할 때 약하지만 함께하는 교회, 곧 인간과 함께하시는 하느님 복음의 능력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흐(1685~1750) 포레(1845~1924)  
사진출처: 음악의 역사(음악사 대도감)

음악칼럼

## 귀로 듣는 시칠리아의 전원 풍경 시칠리아나(siciliana)



임주빈 모니카 | KBS프로듀서

태양이 이글거리거나 세찬 장대비가 내리는 한 여름, 잠시 바다 깊숙이 빠져들면 내려가면 느낄법한 암흑의 고요한 세계를 머릿속에 그려봅니다. 영화 <그랑 블루>의 주인공처럼요. 잠수 경쟁을 하게 된 두 프리 다이버의 우정과 질투, 사랑보다 바다를 택하는 주인공의 깊은 눈이 기억에 남는 이 영화는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섬에서 촬영했다고 합니다.

시칠리아는 이탈리아 남부, 지중해 최대의 섬입니다. 작곡가 벨리니가 시칠리아 출신이고 베르디는 이곳을 배경으로 오페라 <시칠리아섬의 저녁기도>를, 마스카니는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를 작곡했습니다. 또, 영화 <대부>, <시네마 천국>의 배경이 되기도 한 곳이지요. 하지만 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은, 이 섬의 이름 자체가 하나의 음악적 스타일, 장르가 되어 곡명으로 쓰인다는 점입니다. 시칠리아나(노)(siciliana/siciliano), 프랑스어로는 시실리엔느(sicilienne)라고 부르는 곡입니다. 시칠리아의 민속 춤곡이 원형인 이 음악은 17, 18세기 바로크 시대의 여러 작품에서 발견됩니다. 소나타의 한 악장으로 쓰이거나 오페라, 칸타타 등의 아리아에서 찾아볼 수 있죠. 음악적 특징은 약간 느린 빠르기로 8분의 6박자나 8분의 12박자로 연주되며, 음표에 부점(附點)을 붙여 리듬감을 살린다는 점입니다. 곡의 느낌은 애잔하지만 평화롭고 서정적입니다. 목가(牧歌)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죠.

이 시칠리아나의 가장 잘 알려진 곡으로 세 작품을 들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바흐(Johann Sebastian Bach, 1685~1750, 독일)의 플루트 소나타 내림 마(B flat)장조, 바흐작품번호(BWV.) 1031번의 2악장 시칠리아노입니다. 청아한 음색

의 플루트가 친근하고 다정한 선율을 연주합니다.



플루트: 에마누엘 파워  
하프시코드: 트레버 피녹

두 번째로는 18세기 후반 빈(Wien)의 뛰어난 피아니스트였던 파라디스(Maria Theresia von Paradis 1759~1824, 오스트리아)가 작곡한 시실리엔느입니다. 바이올린과 피아노로 연주되는 이 곡은, 시각 장애에도 불구하고 유럽 전역의 연주 활동은 물론 피아노곡과 오페라, 칸타타 작곡, 교육에도 열성을 쏟았던 파라디스의 오늘날까지 연주되는 거의 유일한 작품입니다.



바이올린: 핀커스 주커만  
피아노: 브라이언 웨곤

마지막으로 빼놓을 수 없는 시실리엔느는 바로 포레(Gabriel Fauré, 1845~1924, 프랑스)의 작품입니다. 노벨상을 받은 상징주의 작가 마테를링크(Maurice Maeterlinck, 1862~1949, 벨기에)의 희곡 <펠레아스와 멜리장드(Pelléas et Mélisande)> 연극 공연에 연주될 음악으로 작곡된 곡이죠.



플루트: 제임스 골웨이

세 작품을 연이어 들으면 시칠리아나 음악이 어떤 분위기의 음악인지 확실히 알게 됩니다. 여름은 폭염, 폭우, 바캉스 등으로 불안하고 소란스러우며 들뜨기 쉬운 계절이지만, 우리는 시칠리아나를 들으며 뜻밖에 평화롭고 차분한 여름을 보낼 수도 있지 않을까요?

# 조부모와 노인의 날 편

#조부모와\_노인의\_날 #CPBC 뉴스 #가톨릭\_발전소 #천주교\_서울대교구\_노인사목팀



김광두 고스마 신부 | 사목국 기획연구팀



찬미예수님, 유튜브 세계를 여행하는 그리스도인을 위한 가이드,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맞이하는 ‘조부모와 노인의 날’(World Day for Grandparents and the Elderly)로 어르신들을 위한 가톨릭 유튜브 영상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우리가 더욱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날로 ‘세계 가난한 이의 날’(World Day of the Poor)과 ‘조부모와 노인의 날’을 제정하셨습니다. 조부모와 노인의 날은 예수님의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인 성 요아킴과 성녀 안나의 기념일인 7월 26일과 가까운 7월 넷째 주일에 지냅니다.

우선 교황님께서 이날을 제정하신 이유를 살펴보면 좋겠지요. 작년에 교황님께서 조부모와 노인의 날을 정하셨을 때 가톨릭평화방송 뉴스에서 보도한 영상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올해 조부모와 노인의 날 담화와 이날을 기념하여 발표된 전대사에 대해 보도한 영상도 아래 큐알코드를 스캔하여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부모와 노인의 날 담화문은 서울주보 홈페이지(<https://cc.catholic.or.kr>)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맞벌이하는 부모들이 늘어나면서 아이들의 양육에 할아버지, 할머니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조부모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난 세기 동유럽 국가들에서 사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반세기 가까이 이어진 공산당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가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이 이어질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사목국 채널의 미니 다큐 ‘가톨릭 발전소’ 영상에 담겨 있으니 살펴보시기를 권합니다.

영상을 보고 내 손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어야

하겠는데 아는 것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서울대교구 사목국 노인사목팀’에서 운영하는 채널에 방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본당 시니어 아카데미가 멈춰있는 동안 노인사목팀에서 열심히 제작한 ‘슬기로운 신앙생활’ 강의 영상이 다양한 주제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채널 홈에 보기 좋게 정리되어 있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만, 재생목록 탭을 이용하면 찾아가 볼 수 있습니다. 아래 큐알코드로 노인사목팀 채널의 재생목록 탭을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조부모와 노인의 날’을 제정하신 이유 가운데에는 오늘날 더욱 심각해진 세대 사이의 갈등 문제가 있습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채널의 ‘평Q’코너에 있는 ‘노인들은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하시는 당신에게’라는 영상을 통해 당시 사목국 노인사목팀 담당이셨던 양경모 대건안드레아 신부님의 말씀도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부모와 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서로를 이해하려 애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이웃입니다



→ CPBC 뉴스  
교황 “7월 넷째 주일,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한 날입니다.”



→ CPBC 뉴스  
프란치스코 교황 “노인은 온유한 사랑의 혁명의 장인”



→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목국  
그리스도교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 할머니 할아버지가 전해 주는 예수님 이야기, 신앙의 전달자 조부모



→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인사목팀(나눔)  
채널 재생목록



→ 천주교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평Q] 노인들은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하는 당신에게

## 오늘(7월 24일)은 연중 제17주일(조부모와 노인의 날)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제정하신 '조부모와 노인의 날(2022년 7월 24일)'을 맞이하여, 사도좌 대사원은 신자들의 신심을 강화하고 영혼들의 구원을 복돋우려는 목적에서 전대사를 수여하였습니다. '조부모와 노인의 날' 담화문은 서울주보 홈페이지([www.cc.catholic.or.kr](http://www.cc.catholic.or.kr))-교회 메시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인사발령

| 성명     | 전임지               | 새임지 |
|--------|-------------------|-----|
| 김지형 신부 | 사회사목국 병원사목위원회 위원장 | 면직  |

###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84년 7월 25일 김병호 베네딕토 신부(64세)
- 1988년 7월 29일 임화길 안드레아 신부(77세)
- 1990년 7월 30일 오기선 요셉 신부(83세)
- 2011년 7월 27일 김상우 프란치스코 신부(42세)
- 2019년 7월 29일 한정관 바오로 신부(76세)

### - <전대사 조건> -

'조부모와 노인의 날(2022년 7월 24일)'에  
**1 각자 진심으로 뉘우치고 고해성사를 받고**

**2 영성체를 하고**

**3 교황님의 7월 기도 지향인 '노인들을 위해' 기도하며**

아래 내용 중 하나를 실천할 경우 모든 신자들은 전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① 진정한 참회와 사랑의 정신으로 미사에 참여하기
- ② 도움이 필요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연로한 형제자매들(병든 이들, 버려진 이들, 장애인)을 방문하거나 커뮤니케이션 매체를 통해 만나서 충분한 시간을 보내기

※ 연로한 병자와 중대한 이유로 집을 떠날 수 없는 신자는 모든 죄를 멀리하고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전대사의 통상 조건(1~3)을 충족하려는 지향으로, 이날의 거룩한 예식들에 영적으로 일치하여, 특히 교황 성하의 말씀과 교구의 관련 여러 예식이 커뮤니케이션 매체를 통해서 전해지는 동안 자비로우신 하느님께 자신들의 기도와 삶의 고난과 고통을 봉헌하면 전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주보 게재 신청 안내

서울주보 홈페이지(<http://cc.catholic.or.kr>)에서만 받습니다.

## 가톨릭교리상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서울주보와 함께 만드는 가톨릭교리상식 코너

'가톨릭교리상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벤트에 참여해 주신 분들의 질문으로 꾸며집니다.

### ❗ 기도를 매일 시간을 정해서 하면 들어주실까요?

기도는 반드시 지향을 두고 해야 할까요?

기도가 무엇일까요? 하느님께 소원을 들어달라고 청하는 방법 중 가장 효험(?)이 높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시겠지요? 어쩌면 어떤 특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면 소원 성취 확률이 높아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에, 우리는 더욱 완벽한 기도를 찾아 헤맬 때가 있는 것은 아닐까 돌이켜 봅니다.

하지만 기도는 사실 하느님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하느님과 자주 대화를 나누면서 더욱 관계가 깊어지는 것. 그것이 기도의 순수하고 최종적인 목적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라는 대화를 통해 하느님과 더욱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과 비슷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대화한다면, 더욱 자주 만나서 더 친밀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될 테니 좋겠지요? 주제를 정해놓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

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을 테니까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지향을 두고 기도하는 것도 모두 좋은 기도 방법입니다. 30일 피정을 통해 영신수련을 할 때, 기도 때마다 분명한 지향을 두고 청해야 한다고 가르침을 받았던 것이 기억나네요. '나를 위해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매번 청해야 하는 지향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더 분명히 인식하고, 그분과 더 자주, 더 깊게 대화를 나누기 위한 목적이라면, 말씀 해주신 방법들은 참으로 추천할만한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청하는 바가 이루어질 확률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하는 것은 그다음 문제이겠지요? 동시에 이것도 함께 기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대화이기에, 내 이야기만 하는 것도 때로는 좋지만 사실은 상대방인 하느님의 이야기도 들어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 말이죠!

##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미사

때, 곳: 7월28일(목) 19시, 주교좌 명동대성당  
주최: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주관: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 문의: 02)727-2251

## 제40차 우리의 지구를 위한 미사

대상: 하느님의 창조질서보전에 관심을 갖고 있는 평신도, 수도자, 성직자와 하늘땅물벗 벗님들  
때, 곳: 7월28일(목) 11시, 가톨릭회관 1층 소성당(명동)  
문의: 02)727-2283, 2278 환경사목위원회

##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내 마음의 복벽 봉당 갖기 미사)

때, 곳: 1328차 미사 7월26일(화) 19시, 명동대성당  
이번 주 기억할 봉당: 서울대교구 안악 봉당, 은율 봉당  
미사 후에 한반도 평화와 북녘봉당을 위한 묵주 기도를 봉헌합니다 / 문의: 02)727-2420

## 직장사목팀 성가단 AESTUS CHOIR 단원모집

대상: 20~40대 직장인 가톨릭 신자 / 모집인원: 각 파트 00명  
연습(미사): 매주(금) 19시30분 · 둘째주(금) 20시,  
명동대성당 코스트홀 2층 소성당  
문의: 010-5203-4355 단장, 010-5104-5644 부단장

## 2023학년도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신입생 모집

사제지망 일반에신 학생 및 체계적인 신학 공부를 희망하는 수도자, 남녀 평신도를 모집합니다  
지원자격: 고교졸업(예정자), 대학수교자, 수도자, 만학도(1988년 2월29일 이전 출생) / 문의: 02)740-9704, 9705  
원서접수: 9월13일(화)~17일(토) 인터넷 접수  
면접평가: 11월4일(금)  
홈페이지(<https://songsin.catholic.ac.kr>) 참조

## 제133차 사회교리학교 기본과정 수강생 모집

가톨릭사회교리는 사회문제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입니다  
때: 8월29일~11월7일 매주(월) 19시~21시(8주)  
곳: 가톨릭회관 2층 205-2호  
회비: 8만원(우리 454-009601-13-001 천주교서울대교구)  
문의(신청): 02)727-2431, 02)773-1050(80명) 사회사목국 정의평화위원회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catholicjp.or.kr](http://www.catholicjp.or.kr)) 참조

|            |        |          |        |
|------------|--------|----------|--------|
| 가톨릭사회교리개론1 | 박동호 신부 | 인간과 노동   | 김시몬 신부 |
| 가톨릭사회교리개론2 | 박동호 신부 | 경제생활     | 김승연 신부 |
| 사회교리역사발전   | 정수용 신부 | 환경 생태계   | 백종연 신부 |
| 인간과 인권     | 김병 교수  | 정치 국제공동체 | 하정용 신부 |

## 2023년 명동대성당 상반기 혼인 예약 안내

1월~6월: 7월29일(금) 14시, 프란치스코 홀 / 02)774-1784  
7월~12월: 2023년 1월~2월 중 추첨 예정(추첨 일정 별도 공지)  
추첨은 한 커플당 한번만 하실 수 있습니다  
이중추첨, 양도목적 등 위반 적발 시 혼인예약이 불가합니다

## 2) 혼인 가능 장소, 요일 및 시간

| 대성당     | 금요일          | 13시             |
|---------|--------------|-----------------|
|         | 토요일, 공휴일     | 12시 · 15시       |
| 파밀리아 채플 | 금요일          | 17시             |
|         | 토요일, 주일, 공휴일 | 11시 · 14시 · 16시 |

3) 예약 시 필수 준비사항: ① 교적사본 1부(신랑 · 신부 중 1명), ② 예약금 50만원(현금 또는 수표 / 계좌이체 · 카드 불가)  
명동성당 홈페이지([www.mdsd.or.kr](http://www.mdsd.or.kr)) → '혼인성사 안내' → 혼인미사 안내문과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추첨 일정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갤러리1898 전시안내 / 문의: 02)727-2336

하계 휴관: 7월27일(수)~8월2일(화)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

때, 곳: 7월25일(월) 10시30분, 양천성당  
문의: 02)921-5094, 010-3732-5093

## 서울대교구 해외선교후원회 월례미사

대상: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나(회비 없음)  
때, 곳: 8월4일(목) 14시~15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  
집전: 송영호 국장신부, 김윤상 차장신부(해외선교봉사국) / 문의: 02)727-2407, 2409

## 경찰사목위원회 선교사 양성교육(2022-2차 교육생 모집)

대상: 경찰사목 선교사 활동에 관심 있는 견진성사를 받은 서울대교구 신자 / 회비: 10만원  
때: 8월10일~12월21일 매주(수) / 20주 과정  
곳: 가톨릭회관(명동) / 신청기한: 7월29일(금)까지  
문의(접수): 02)742-9471, 3 경찰사목위원회 교육센터  
경찰사목 선교사 활동 및 교육과정은 홈페이지([www.catholicpolice.or.kr](http://www.catholicpolice.or.kr)) 참조

## '9월달 도보순례' 접수 안내

8월15일부터 시작되는 '9월달 동행' 기간 중 해설사와 함께하는 도보순례입니다

| 날짜       | 코스                              | 비고               |
|----------|---------------------------------|------------------|
| 8월23일(화) | 1코스 말씀의 길<br>(명동성당~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 오전 8시30분부터 순례 예정 |
| 8월27일(토) | 1코스 말씀의 길<br>(명동성당~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 오전 8시30분부터 순례 예정 |
| 8월30일(화) | 2코스 생명의 길<br>(가화동성당~당고개성지)      | 오전 8시30분부터 순례 예정 |

폭염, 우천 등 기상상황에 따라 일부구간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7월25일(월) 오전 9시부터 순교자현양위원회 홈페이지([www.martyrs.or.kr](http://www.martyrs.or.kr)) 선착순 접수 / 문의: 02)269-0413  
회비: 1인 7천원 / 전 구간 도보순례(3시간 이상), 전화 및 문자 접수만지 않습니다

## 학교사목부 봉사자 모집

"점점 성당에서 청소년들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직접 '학교'로 찾아가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I-Brand란 청소년국 학교사목부에서 개발하여 신자 · 비신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인성교육'입니다 비종교적 내용이지만 복음적 가치가 담긴 컨텐츠로 청소년들을 선하신 하느님께 이끅니다  
문의: 02)553-7321 학교사목부 / (일, 월 휴무)

|            |                                                                                                                                                                                                        |
|------------|--------------------------------------------------------------------------------------------------------------------------------------------------------------------------------------------------------|
| 봉사자 활동     | ① 먼저 봉사자 자격을 위한 집중교육을 이수한 후(총 3시간) / ② '초 · 중 · 고등학교 동아리(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지도 선생님과 파견되어 월 1~2회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
| 봉사자로 초대합니다 | 견진성사 받은 만 20세~55세, 무엇보다 청소년을 사랑하고 소통할 수 있는 분<br>때, 곳: 8월23일~25일 · 8월30일~9월1일(하루 5시간 / 총 6일), 가톨릭청소년회관(역삼동)<br>회비: 10만원 / 접수: 8월13일까지 홈페이지( <a href="http://www.kyos.or.kr">www.kyos.or.kr</a> ) 팝업창 참조 |

## 인준단체 일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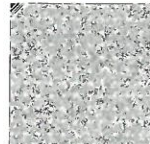
## 모임

## 작은예수수녀회 매일 철야기도 지향

대상: 중재기도(특별기도) 필요하신 분  
때: 8월1일~31일 / 문의: 010-8874-7970

## 화요기도 피정(파티마평화의성당)

때: 매주(화) 10시~14시(미사)  
곳: 파티마평화의성당  
중식 제공 / 문의: 031)952-6324



## 토아울람 후원회 화요 치유 피정

때, 곳: 매주(화) 12시30분~16시, 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종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 하느님 자비를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팔로티회)

때: 7월26일(화) 12시30분(강의·성시간)~15시(미사)  
곳: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정동) 6층 / 문의: 031)707-4450

##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때, 곳: 7월29일~8월1일 · 8월12일~15일 · 8월26일~29일 · 9월23일, 성 도미니코 수도원(주최, 수유동)  
회비: 36만원(효소비 포함) / 문의: 010-9363-7784 글라라

## 대구·부산·마산교구 순례·왜관 수도원 전례·탐방

때, 곳: 9월1일~4일(부산·마산) · 11월11일~15일(대구·울릉도·독도) · 12월3일~5일(대구17) · 12월16일~19일(부산·마산), 왜관 수도원 피정의집(주최)  
출발: 서울(대행버스) / 문의: 010-3807-1784

## 루하 찬양의 광장(청년성령쇄신봉사회)

찬양을 통한 치유회복기도회에 청소년과 청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카카오톡플러스친구: 루하  
때: 매주(금) 19시30분  
곳: 천주교 성령쇄신봉사회관(관악구 조원동) 3층  
문의: 02)866-6345 / 인스타그램: @ruah.fiat

##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 순례 피정  
자연순례: 7월30일~8월2일(우도), 8월6일~9월(우도), 8월12일~15일(우도), 8월20일~22일, 8월26일~28일  
문의(접수): 02)773-1463, 064)756-6009

## 제주 성 이시돌 자연 순례 피정

천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에서 갖는 평화로운 섬과 재충전의 순례  
대상: 개인, 가족, 일행, 봉당 단체 구반장  
때: 7월31일~8월2일 · 9월3일~6일 · 9월15일~17일, 여름특별일정 8월6일~9일 · 8월13일~16일  
문의(접수): 02)773-1455, 064)796-4182

## 베네딕도회 성경통독 8월 단식 피정

곳: 성 베네딕도회 화순 수도원(<http://hsosb.or.kr>)  
제105차 8월12일(금)~20일(토) 문의: 061)373-3001,  
제106차 9월9일(금)~17일(토) 010-3540-9001

##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성소 피정

선착순 접수 / 문의: 010-6608-3217 성소담당 신부  
중고등부 8월9일(화)~11일(목), 산청 성심원(경남)  
일반부 8월13일(토)~15일(월), 카리따스 피정의 집(경기 양평)

## 음악치유 피정 및 음악심리상담사자격 교육

곳: 한국음악치료연구소(전철 3호선 대청역)  
문의: 010-4252-1165 가톨릭성음악클레식기타회

|              |                                     |
|--------------|-------------------------------------|
| 음악치유 피정반     | 8월22일~9월5일<br>매주(월) 13시30분~16시30분   |
| 음악심리상담사 자격증반 | 8월25일~11월17일<br>매주(목) 13시30분~16시30분 |

교육

**수제 목주 기초에서 전문까지(가톨릭목공예)**  
카페: cafe.naver.com/cmc04 / 문의: 010-5234-5044

**커피바리스타 교육(여성생활연구원)** / 문의: 02)727-2472  
(사)한국커피협회 수석심사위원 직장 홈카페마스터자격증반

**‘다함께 성가를’ 발성교실**  
평화방송TV 이호중 교수 직장  
곳: 시스파니움약원(주최, 신촌) / 문의: 010-9842-8818

**새천년복음화학교 1단계 147기 개강**  
때: 9월26일(월) 10시·9월29일(목) 19시  
회비: 7만원 / 문의: 02)753-8765, 010-8931-8765

**성바오로수도회 말씀학교 영성강좌**  
내용: 마르코 복음 / 문의: 010-6287-9753  
때: 9월1일(목) 10시~12시30분(미사 포함)  
곳: 성바오로수도회 본원 / 회비 없음

**2022년 국악성가 캠프 참가자 모집**  
대상: 성가대, 일반 신자 / 입금 선착순 200명  
때, 곳: 8월26일~28일, 영성의집(양산)  
회비: 25만원(버스비 5만원 별도) / 문의: 010-2279-0255

**수원교구 사이버성경학교 수강생 모집**  
대상: 성경공부를 원하는 모든 분  
성직자, 수도자, 장애인 50%할인(전화 필수)  
문의: 031)360-7635, 010-7470-7966

**서울대교구 가톨릭 다도회 가을학기 회원 모집**  
내용: 다도와 인성 예절 교육  
때, 곳: 9월16일~12월9일 매주(금) 14시, 교육장  
(인사동) / 문의: 010-8912-2640, 010-3226-6078

**서울대교구 성체안의 성체세미나(성령쇄신봉사회)**  
때: 8월6일~27일 매주(토) 13시~17시(4주)  
교통: 전철 2호선 신림역 5번 출구 환승, 버스  
500·504번 천주교성령봉사회관 하차  
회비: 2만원 / 문의: 02)867-7900, 010-8004-9546

**예수회 특별강좌 가톨릭 신앙과 영성**  
강의 주제: ① 죄와 구원 1·2 ② 장애와 영성 ③ MZ 세대와의 만남 ④ 영혼을 치유하는 소리 ⑤ 영적 성장의 심리적 역동성 ⑥ 상처와 치유에 대한 오해와 성서학적 진실 / 강사: 주원준 박사, 박승희 교수, 홍기령 교수, 임숙희 박사 및 예수회 사제(최시영·이훈관)  
현장 강좌: 9월13일 개강, 매일 둘째·넷째주(화) 오전 10시~12시(총7회), 예수회센터 3층 성당 / 동영상강좌: 링크 발송  
문의(접수): 02)3276-7733(http://center.jesuits.kr)

모집

**예수성심전교수도회 재속(친교회) 회원 모집**  
대상: 만 60세 이하 견진성사 받은 분 / 010-8735-4889

**성프란치스코 하프 앙상블 단원 모집**  
바이올린, 첼로, 클라리넷, 플루트, 피아노, 합창  
(전 파트) 전공불문 / 문의: 010-2713-8910

미사

**평양교구 신우회 미사** / 문의: 02)727-2056  
때, 곳: 7월27일 11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절두산순교성지 마리아연례회 미사** / 문의: 02)3142-4434  
때, 곳: 7월29일(금) 11시30분, 전철 2·6호선 합정역 7번 출구 / 내용: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한 연도 및 미사

**7월 영화 치유 미사**  
내용: 단편영화 상영, 나눔, 미사 / 회비 없음  
때, 곳: 7월27일(수) 오전 10시30분, 가톨릭회관 205-2호  
문의: 0507-1424-0712 가톨릭영화인협회

**성서가족 열린미사(역삼동성당)**  
청년성서모임 40대, 50대 성서가족들이 홍인식 신부와 함께하는 찬양미사 / 문의: 010-5229-9425  
때: 매일 넷째주(일) 7월24일(8월 미사 없음)  
곳: 역삼동성당 및 온라인 / 유튜브 ‘열린미사’ 검색

**웅기장학회 월례미사**  
때, 곳: 7월25일(월) 11시, 명동대성당 파밀리아 채플  
주례: 백상열 신부, 박신언 몬시뇰 공동집전  
강론: 이성우 신부 / 우리 가정의 평화와 행복을 빌며, 우리보다 앞서가신 김수환 추기경님과 우리 각자 조상들의 영혼을 위해 봉헌합니다  
문의: 02)727-2525 사무국

**오기선요셉장학회 월례미사 및 추모미사**  
월례미사 및 황인국 몬시뇰 1주기 추모미사: 7월28일(목) 오후 3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  
오기선 요셉 신부 32주기 추모미사: 7월30일(토) 오전 11시30분, 용인천주교묘지 김수환추기경 기념경당 및 성직자묘지(031-334-0807)  
집전: 김정수 신부, 오웅진 신부 외 사제단  
무료대절버스: 010-8982-9819 명동대성당 출발, 010-8936-2331 절두산 출발, 010-5202-5145 대방동·혜화동성당 8시30분 출발

인내

**돌아보며 깨닫기 영성심리상담**  
최영민 신부(예수회) / 문의: 010-3173-2665

**전·진·상 영성심리상담소** / 문의: 02)726-0700  
곳: 명동 / 홈페이지: www.jjscen.or.kr  
아동·청소년·성인 진로적성검사: 다중지능검사·자기조절학습검사·인성검사·그림검사, 강점지능을 통한 진로 탐색, 대인지능을 통한 사회성 훈련 및 관계 회복

**사별가족 돌봄 프로그램 ‘사랑샘’**  
대상: 사별을 경험한 가족으로 회복의 시기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분들(배우자 사별에 한함)  
때: 9월6일~10월25일 매주(화) 14시~17시(8회)  
곳: 가락2동성당(주최, 송파구 중대로20길 20-1)  
문의: 010-9637-1612 신 카타리나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문의·국내입양상담: 02)764-4741~3(www.holyfca.or.kr)

**2023년 도림동성당 혼인미사 접수**  
거룩한 혼인미사(실내·야외 선택가능)를 위한 아름다운 성전과 넓은 성도마당, 소형 기념미사 및 미니웨딩(10~20명 참석) / 문의: 02)833-9439  
접수: 7월26일(화) 10시, 도림동성당 사무실 / 선착순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도병원**  
중독 중점치료(알코올·마약·도박·인터넷 게임 등),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야간진료(화) 18시~20시30분  
곳: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 홈페이지: www.karf.co.kr

**가톨릭뇌은행 뇌기증 희망자 모집**  
치매와 파킨슨병 등의 퇴행성 뇌질환의 극복을 위해 사후 뇌기증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상: 성인 누구나(만 19세 이상) / 문의: 02)2258-7660  
기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가톨릭뇌은행  
관련기관: 과기부 산하 한국뇌은행

**대천해수욕장 요나성당(리조트) 운영**  
대천해수욕장 관광 및 휴양, 개인 피정, 매일미사  
대전교구 성지순례를 위한 숙소로 이용 가능  
대천해수욕장 요나성당 인근 성지: 갈매꽃 순교성지, 서짓골 성지, 청양 다락골 성지 / 문의: 041)934-7758  
인터넷 검색창에 ‘요나성당 연수원’ 검색  
홈페이지: https://yonaresort.modoo.at

**응암동성당 ‘요셉 추모와 축복의 벽’ 기도패 신청**  
추모와 축복패 접수 / 사용 기한: 무기한단, 20년 이후 재건축 등의 상황 변화에 따라 기간 변동될 수 있음  
대상: 고인(추모패), 세상을 살고 있는 교우·비신자 등(축복패) / 사용료: 1인패 100만원, 2인패 150만원  
혜택: 합동 위령미사 봉헌(명절·위령의날), 매일 1회 추모와 축복미사 봉헌 / 문의: 02)2021-2700 사무실

직원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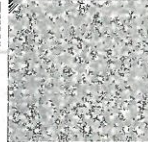
**강화꽃동네노인요양원 직원 모집** / 문의: 010-3040-7518  
남녀요양보호사 / 주 40시간 3교대, 기숙사 가능

**서울성심간병인회 남녀 간병사 수시 모집**  
곳: 서울삼성, 서울성모, 여의도성모, 은평성모병원  
근무 내용: 환자에게 간병 제공(24시간 병원 상주) / 1522-9415

**서울대교구 특수사목사제관 직원 모집**  
대상: 세례받은 분  
분야: 주방근무자 0명(계약직, 정규직 전환 가능)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지원업무 기재),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본당 발급) 각 1부 / 이메일 문의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연락) / 8월14일(일)까지 우편(우 04537, 서울시 중구 명동길 74 서울대교구 사무처) 및 이메일(aoinsa@seoul.catholic.kr) 접수

| 수도회 성소모임            | 때            | 곳            | 문의                                  |
|---------------------|--------------|--------------|-------------------------------------|
| 성 베네딕도회 요셉 수도원      | 7월30일(토) 14시 | 본원(경기도 남양주시) | 010-4241-1210 성소 담당                 |
| 양주 올리베타노 성 베네딕도 수도원 | 8월7일(일) 10시  | 수도원          | 010-6312-1986                       |
| 예수회                 | 수시           | 한국관구 성소실     | 010-6357-0731(ocation.sj@gmail.com) |
| 천주교서울교제선교회          | 수시           | 신학원(한남동)     | 010-2749-4596, 02)749-4596          |
| 한국외방선교회             | 8월7일(일)      | 본부(성북동)      | 010-8715-2846 성소국장 신부               |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 신간

##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

안톤 로체터 지음  
프란치스코출판사 | 144쪽 | 1만원  
문의: 02)6325-5600

안토니오 성인의 설교집과 기적 사례를 모아 하느님 말씀의 봉사자로 자처했던 성인의 이야기를 완성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여정이라고 믿는 성인의 모습, 묵상 중에 깨달은 하느님이 주시는 기쁨을 세상 사람들과 나누고자 했던 성인의 열정적인 모습을 담백하게 전한다.



## 신간

## 망고생크림케이크

조명연 지음  
파람북 | 280쪽 | 1만5천5백원  
문의: 02)2038-2633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자신의 마음 상태에 따라 제각기 해석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 부정적인 마음에 사로잡혀 있으면 '망고생크림'이 '망고생크림'으로 보일 수도 있는 것이다. 마음을 긍정과 희망으로 채우면 삶 자체가 행복에 가까워질 수 있음도 당연하다고 저자는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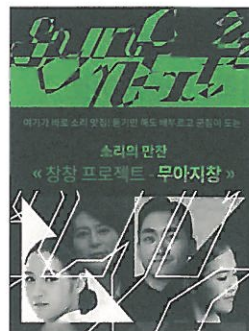


## 공연

서울시합창단  
한여름의 메시아

공연일시: 장소: 8월 9일(화)~10일(수) 19시 30분, 세종체임버홀  
입장권: 전석 3만원 / 문의: 02)399-1000  
전화 예약 후 관람 당일 서울주보나 모바일의 본 안내문 지참시 주보 1부로 2명 20% 할인(학생 (초·중·고) 50% 할인 (대학·대학원생) 20% 할인)

전 세계적으로 많이 연주되는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서울시합창단과 함께 소프라노 허진아, 카운터테너 정민호, 테너 김세일, 바리톤 강주원이 참여하고, 카메라타 안티파와 서울이 협연한다. 특별히 이번 공연은 '할렐루야'를 관객과 함께 연주한다.



## 공연

창창 프로젝트  
:무아지창

공연시간: (금) 19시30분, (주말) 18시  
입장권: 1층(테이블석) 6만원, 2층 4만원  
문의: 02)399-1000 세종문화회관  
전화 예약 후 관람 당일 서울주보나 모바일의 본 안내문 지참시 주보 1부로 4명 30% 할인(매진의 경우 현장 구매 불가함, 중복할인 불가)

전통 소리와 성악으로 훈련한 여섯 젊은이가 모여 만든 공연 <창창 프로젝트-무아지창>이 7월 29일(금)~31일(주일)까지 세종S씨어터에서 공연된다. 우리 소리가 이 시대와 어떻게 호흡해야 하고 소리꾼들의 목청은 어떠한 창문이 되어야 하는지 보여줄 예정이다.



## 전시

한국천주교순교자박물관  
특별기획전  
INTENTIO 지향

개막미사: 7월 22일(금) 오후 3시  
장소: 한국천주교순교자박물관  
문의: 02)3142-4504  
한국천주교순교자박물관 학예연구실

한국천주교순교자박물관(절두산순교성지 내)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지향과 공동체적 사랑이 오롯이 담겨 있는 '상본'을 소재로 특별기획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천오백여 점과 이번 상본 기증 운동을 통해 입수된 이천여 점의 첫영성체, 종신서원, 사제서품, 그 외 기도문이 담긴 상본 중에서 천오백여 점이 공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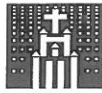
## 공연

2022 국립합창단  
써머 코랄 페스티벌

입장권: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문의: 02)580-1300 예술의전당  
1544-1555 인터파크 티켓  
전화 예약 후 관람 당일 서울주보나 모바일의 본 안내문 지참시 주보 1부로 2명 20% 할인(학생·초·중·고(대학생) 30% 할인, (만 65세 이상) 50% 할인)

국립합창단의 기획 공연 <써머 코랄 페스티벌>이 오는 8월 12일(금)과 8월 30일(화) 19시 30분,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에서는 영국의 낭만주의 작곡가 본 윌리엄스의 최초 교향곡으로 음악적 기교와 웅장함, 드라마틱한 요소가 가미된 <바다 교향곡>과 시인 최승호의 '눈사람 자살 사건'을 모티브로 그려낸 <마지막 눈사람>이 관객들과 만난다.

제2238(성 바오로 사도 회심 축일)



진주교연희동성당

http://www.yeonhui.or.kr

03727 서울시 시대문구 연희로 64-14

본당사무실 : 323-4450~1, 4456

FAX : 336-2233

주임신부 : 류시창(베드로)

보좌신부 : 이철규(아우구스티노)

안락회장 : 지병국(바오로) 010-5512-4450

|       |                                                                                                                                                                |         |                      |
|-------|----------------------------------------------------------------------------------------------------------------------------------------------------------------|---------|----------------------|
| 주일 미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토요일 : 오후 3시 (초등부), 오후 6시</li> <li>주 일 :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 (중고등부·반대), 오전 11시 (교중) 오후 6시 (청년 20, 청년 30)</li> </ul> | 유 아 세 례 | 홀수 달 첫째 주일 오후 4시 30분 |
| 평일 미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월요일 : 06시 화요일 : 10시, 19시 수요일~금요일 : 06시, 10시 토요일 : 06시</li> </ul>                                                        | 혼 인 면 담 | 매 월 셋째 주 일 오후 3시     |
|       |                                                                                                                                                                | 성모신심미사  | 매 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

## ◎ 전입교우를 환영합니다(6월~7월).

| 성 명 | 세 례 명 | 구역/반 |
|-----|-------|------|
| 강민구 | 프란치스코 | 3-4  |
| 방만수 | 요셉    | 4-4  |
| 임재심 | 리디아   | 10-7 |

## ◎ 전입교우 환영식

일시 : 7월 24일(주일) 교중미사 후 301호

## ◎ 여성을드레아

일시 : 7월 26일(화) 오전 10시미사 후 304호

## ◎ 병자영성체 : 7월 29일(금) 10시 미사 후

## ◎ 7월 30일(토) 초등부주일학교 물놀이로 어린이미사는 오후 2시로 변경되었습니다.

## ◎ 초등부주일학교 물놀이

일시 : 7월 30일(토) 오후 3시~5시, 성당마당

※ 오후 5시까지 성당마당 차량을 통제합니다.

## ◎ 성모 신심 미사 : 8월 6일(토) 오전 10시

## ◎ 복사단 여름캠프

일시 : 8월 2일(화)~3일(수)

장소 : 용인 캐리비안베이 &amp; 에버랜드

## ◎ 중고등부주일학교 여름캠프

일시 : 8월 5일(금)~7일(주일)

장소 : 가평 힐링캠프

대상 : 중고등학생

접수마감 : 7월 24일(주일)

지하 중고등부 교사실 및 사무실에서 접수받습니다.

문의 : 글라라 교감 (010-2517-3614)

## ◎ 초등부주일학교 여름가족캠프

일시 : 8월 19일(금)~21일(주일)

장소 : 용문청소년수련원

대상 : 초등부 가족(유치부 포함)

\* 학생만 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문의 : 안토니오 교감 (010-5377-8909)

※ 주일학교 여름행사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 ◎ 수험생을 위한 100일 기도

대상 : 수능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의 학부모

기간 : 8월 9일(화)~11월 16일(수)

일시 : 매일 오후 8시 / 소성전

문의 : 중고등부자모회장 (010-3264-7970)

※ 신청은 문자로 연락바랍니다.

## ◎ 하절기 성당시설 이용시 유의 사항

※ 하절기 에너지 절약을 위해 단체회합 후에는 전등, 선풍기, 에어컨이 꺼졌는지 확인해주시고, 성당의 전기, 수도 등 모든 자원을 아껴서 사용해주세요.

※ 냉방중인 곳과 잠금장치 설치된 곳에 문을 꼭 닫아주세요.

## ◎ 오늘은 성당유지보수를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 교무금 책정 현황 (2022. 7. 17)

| 총세대   | 책정세대<br>(책정율)  | 납부세대<br>(납부율)  | 2021년<br>책정율 | 2021년<br>납부율 |
|-------|----------------|----------------|--------------|--------------|
| 2,094 | 827<br>(39.5%) | 783<br>(37.4%) | 43.8%        | 42.5%        |

|         |      |               |
|---------|------|---------------|
| 교무금계좌번호 | 우리은행 | 137-04-110875 |
|---------|------|---------------|

※ 교무금 자동이체 신청해서 납부 바랍니다.

※ 교무금은 반드시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성당유지보수기금 (2022년)

조부자 ..... 일십만원

누 계 ..... 52,908,600원

## ◎ 연명회 감사헌금

고 김순동 마라도미카 상가 ..... 이십만원

## ◎ 감사헌금 (7월 11일~17일)

함영동 ..... 일만원

## ◎ 우리들의 정성(연중 제16주일)

교무금 ..... 5,510,000원

주일헌금 ..... 4,345,000원

성당유지보수를 위한 2차헌금 ..... 1,730,000원

|    |    |    |          |    |          |    |    |
|----|----|----|----------|----|----------|----|----|
| 입당 | 21 | 봉헌 | 212, 332 | 성체 | 498, 169 | 파견 | 65 |
|----|----|----|----------|----|----------|----|----|



주님제가 부르짖던 날 당신은 응답하셨나이다